



안타까운 이별을 보며

최 영 순 _ 인천호스피스대표, 인천지부장

목련, 개나리, 벚꽃, 진달래 만발한 봄날, 주님의 숨씨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염색으로 되어진 색이라면 참 촌스러웠을 텐데 자연의 색인 그 꽃들은 참 화사하고 아름답다.

호스피스를 한지 벌써 햇수로 13년째가 되는 올봄에도 환자를 보면서 생각에 생각을 하게 된다. 환자들이 모두가 살아오는 동안 삶이 아름답고 잘 사신분들은 아니다. 갈등도 있고 자신의 역할이 아닌 다른 역할을 해야 했던 가족들의 역동은 참 복잡하고 어렵다. 역기능적인 역동관계가 순기능으로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환자들의 남은 삶을 잘 보낼 수 없는 모습을 본다.

어떻게 삶의 과정을 가져야 할 것인가? “잘 살면 되지”라고 뽕뽕맞은 답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잘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싶다. 분명히 열심히 산다고들 하면서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돌보다 보니 서로의 방식이 맞지 않아 갈등을 겪게 된다. 서로의 방식이 맞고 틀리고의 개념이 아니라 같지 않고 다르다고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물론 처음부터 그러기에는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노력을 하는 정도에 따라 서로의 상호작용이 달라질 수 있겠다.

81세의 폐암 환자가 의퇴되어 돌보았는데 젊었을 때 술을 드시고 폭력을 행사하며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고 한다. 20년 전에 위암 수술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계속 술과 담배를 심하게 하며 가족을 힘들게 했다. 작년 12월에 폐암이라고 진단을 받고 호스피스에 의퇴 되었다. 아내는 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하는 환자였고, 환자는 여전히 아내를 폭행하고 소리 지르고 화를 내며 술과 담배도 끊

지 않았다. 아내를 지지 하면서 어려웠던 것을 알아봐주고 잘 하고 있음을 격려하면서 힘을 돋우었다. 환자는 얼마나 힘들고 속상한지 알아봐주고 증상 완화를 위한 도움을 드리며 아내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잘 들리지 않는다는 핑계로 모른척 하신다. 살아온 그때의 문화가 남성 위주였기에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인지, “나도 어려운데 뭘”하는 당연하다는 모습이다. 그러기에 아내는 환자가 언제나 가려나 하고 환자는 아내에게 화만 내다가 이별을 하였다.

우리 모두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 중에 좋은 만남을 만들어가고 헤어질 때는 아쉬움과 감사와 사랑 가운데 이별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너무 감정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사고의 틀을 주장하느라 상처를 주고받는 이별을 하게 된다. 그래서 특히 호스피스를 하는 사람들은 열린 사고를 갖고 호스피스를 잘 이해한 후에 객관적이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아야겠다. 환자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배려와 돌봄의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겸손 할 수 있어야 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며, 무엇을 위하여 하는 일인지에 대한 분명한 소명 의식도 필요하겠다. 마태복음 20장 26-2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섬김의 자세를 닦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서로를 섬기며 배려하는 애뜻한 돌봄 속에서 이별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도 나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주변을 사랑하고, 주님의 본을 따라 섬기며,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를 돌아보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겸손함을 지니길 바라고, 궁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